

서울시 제화산업(製靴産業)의 공간적 집적 특성 및 혁신환경 분석

박래현(경희대학교 지리학과, geogehyun@hanmail.net)

서울시 산업구조재편 과정에서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제조업의 입지가 도시중심과 도시내부지역에서 도시외곽지역으로 지속적인 분산화의 패턴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시의 최근 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독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 현상은 서울시의 제조업 분산화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 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도시내부에서 집적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특정 제조업 부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도시내부의 높은 입지지대를 감당하거나, 일반적으로 학습과 혁신의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는 첨단기술산업과도 거리가 있는 저기술(low-tech)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저기술 제조업 부문의 도시내 특정 지역으로의 집적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제화산업(製靴産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의 좋은 사례가 된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우리 나라 제화업체의 약 38%, 종사자의 약 37%가 집중해 있으며, 특히 성수동 지역에는 서울시 업체의 약 45%가 집중해 있다. 성수동으로의 집적은 최근 10년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화업체를 포함한 원자재업체, 부품업체, 시설업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조합 등이 함께 모여있어 제화산업 클러스터로서 성장 중에 있다.

성수동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제화산업의 집적 특성과 혁신환경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제화산업의 집적은 공장부지 확보의 용이, 교통의 편리 등과 같은 지역적 요인에 의해 유인되었으나,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형성, 유사·동종 업체의 집적과 연계, 기술 및 정보의 습득 등과 같은 동적이며 국지화된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둘째, 서울시를 넘어 해외지역까지 업체간의 연계 범위가 확장되어 있으며, 연계의 속성은 단순 거래관계, 원·하청관계를 넘어 상호신뢰와 동업자 의식에 바탕을 둔 협력관계가 핵심이 되고 있다. 이는 집적지역 내에서의 활발한 행위주체간 지식·정보의 교환과 학습발생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 셋째, 집적지역에서는 기획 및 디자인 부문, 생산기술, 업체운영 및 판매부문 등에서 새로운 혁신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는 업체에서 집적지역 전체로 집단화되어 축적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도시지역 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도시 산업구조재편의 과정에서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이 첨단기술산업으로의 구조재편을 통해서 달성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통적인 산업 혹은 저기술 산업부문에서의 경제활동 조직과 수행방식을 전환함으로써 달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